

흙 만드는데 10년

풀 만드는데 10년

海印農場 金 儀 守

〈本會 및 大韓養豚協會 理事〉
〈韓國酪農經營研究會 會長〉

오늘 축산업계를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이자리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경남 가야산기슭 해인사근처에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海印農場 金儀守 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의 앞날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앞에서 불과 10여년 밖에 안되는 유치원생이 감히 흙만드는데, 풀만드는데 10년이란 말을 할 자격이 아직 없는 사람인 줄 잘 알면서도 주저없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떤 하소연을 할 때가 없었으니까 자리를 빌린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낙농업을 시작하고 소를 키우다 초지가 필요하여 산을 개간하고 풀을 심은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애국심에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농촌에 대한 잠재적인 동경, 취미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은 본인의 생업이자, 인생의 전부로서 인생과 인생 철학과 결부되어 제 팔자소관이라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고 정신없이 앞만보고 밀고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흙 만드는데 10년

풀 만드는데 10년!!

흙만들어 보신 여러분! 풀만들어 보신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세월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임을 체험하셔서 너무도 잘하시고 지켜 있을 줄로 압니다. 기술없고, 자재없고, 길없고 전기없고, 전화없고, 물없고, 사람없고, 고독하

고 말 많고, 조건 많고, 간섭 많고, 법 까다롭고 가라오라 하는 사람 많고, 걸리는 것 많고, 돌 많고, 봄은 짧고, 여름은 덥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시기를 놓치면 1년 기다려야 하고 한해가 가면 또 한해, 나중에는 돈떨어져, 힘떨어져, 의욕떨어져, 좌절하고 마는 우리 개척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종사하고 계신분의 고충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영위하면서 제일 가깝고, 거래가 많은 것이 단위조합이나 지역축협, 축산 제일 것입니다. 돈맡기는 사람없고, 돈값는 사람없이 축산창문에 손님이 텅텅 빈 광경을 보십시오. 소를 키우는 우리의 호주머니 사정을!! 이러한 여러가지 악조건의 현상은 앞으로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만 나아질까 하는 기대를 갖고 소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나 위정자는 다같이 서로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낙농사정"이란 잡지에 우유대 인상론의 서두에 「한 사람의 고충은 만인이 이해하여 깊고 넘어가야 하고, 만인의 고충은 한 사람이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처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나는 불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흙만드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은 기계문명을 받는 오늘의 이야기이지 옛날에는 20년, 30

년, 100년도 더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즘은 낙농을 하려고 산을 사려고해도 몇년 걸리고 시작하기까지에는 허가내고, 길내고, 묘의 이장공고를 내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용수를 개척하려면 착실히 2년은 소요되는군요. 본인이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골자는 여러분이 해보시고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노력의 댓가는 타업종에 비해 너무나 경시당하고 있어, 수익의 격차를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는 것과 “농자천하지대본”이니 하는 구호로만 농민을 후대하는양 하지말고 국가장래를 좀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낙농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하도록 하게 하고 지금 하고있는 사람을 그만두지 않게 하거나 망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육류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축산경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따라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의 증가도 불가피하여 사료의 자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산지초지 개발에 대한 당위성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의 사육에서는 조사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업, 전업, 기업목장 할 것 없이 일치된 원칙이며 초지에 대한 인식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만성적 식량 부족국가로 그 과반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무기화 추세까지 야기되고 있어 안보적 차원에서 소의 증식은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니 식량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게다가 소득수준 향상으로 식품소비구조가 다양화되고 국민의 일반적 요구는 보다 값싸고 풍부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간 우리 국토의 山地는 거의 이용하지 못했 다해도 과언은 아니며 광복후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투자를 계속해 왔지만 토지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높이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술수준이나 지식, 자본의 뒷받침이 없었던 것도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농산물가격 보장이 안되고 투자나 노력에 비

해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경제우위로 농업경제는 완전히 무시당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산지자원은 쓸모없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연간 4만여톤의 최고기를 귀중한 외화를 소비하면서 사다먹는 오늘의 지경을 그누구의 책임으로 볼 것입니까?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납니다. 지금 남대문로타리 옆에 있다가 허물어간 무역회관에 1억불 수출기념이란 현수막이 벽에 걸려있을 때 입니다. 1억불은 일본의 큰상사 하나의 수출고보다 적은 때가 불과 20년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은 경제전쟁에서 하다 못해 자동차산업까지도 석권하고 있고 80년대는 컴퓨터·항공우주·전자통신 및 다른 고도기술 산업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시간문제 일 것입니다. 미국이 다만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농업 자원이 풍부한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은 낙농산업을 21세기의 최고 산업으로 보아 산지이용의 경제성을 타산업에 비해 수지맞는 산업이라 판단하여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잘못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낙농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에 놓여져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인은 한사람을 위해서, 한사람은 만인을 위해서」의 사회기본이념을 떠나서라도 생산자는 소수이고 소비자는 다수이니 다수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오는 모순은 장래의 사회적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졸렬한 생각이 바로 망국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일상생활 면에서 힘을 합하여야만이 식량자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유가격은 1982년에 kg당 313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당시 착유 3호의 사료대는 kg당 165원 이었는데 현재는 kg당 204.60 원으로 인상이 되어 24%의 인상율을 나타내고 있고 인건비, 비료대, 조사료 위상요인 등과 함께 본인의 경우에 있어서 생산비중 사료비만으로 볼 때 인상요인이 생겼어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소를 가지고 서투른 축산업을 하는 우리나라 농가사정이고 보면 여러가지 따라오는 위생문제 사료문제등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상상이 된다.

4. 결론

우유라는 영양가 높은 식품은 생각해보면 참

으로 매력적인 식품이며, 더욱더 우리가 못먹는 풀을 소가 먹고 만든 우유라는데서 더욱 그 가치가 높게 평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우리나라 축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밝은 마음으로 우유를 마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양가만 따지라면 참으로 좋은 식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하 20 페이지에서 계속)

- ③ 畜産經營의 系列化는 慎重을 圖謀
- ④ 商業乃至 投機畜産의 止揚과 경계로 農業畜産으로 定着化를 誘導
 - 時勢便乘의 畜産경계

라. 畜産業者의 自覺과 協同團合으로 安定的 畜産發展을 圖謀하여야 함

- ① 生産費의 節減과 消費者保護

- 施設, 飼養, 勞動, 技術面에서 生産費節減方案講究
- ② 適正生産費調査와 生産者保護
 - 生産費調査의 定例化試圖
 - 畜産業者의 記帳化誘導
- ③ 生産者團體의 協力體系強化
 - 生産者의 團體에 自意的參與와 團合
 - 生産者團體의 育成強化

(이하 35페이지에서 계속)

끝으로 축산의 앞날을 위한 저의 소견을 정돈하여 강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 쇠고기와 육우 및 유우 수입에 있어서 수입량을 극소량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둘째, 수입쇠고기값과 국내쇠고기 값의 차액은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위한 제도화를 바라며

셋째, 쇠고기와 우유값은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생산원가의 변동 요인에 따라 연 1회이상 재조정하도록 하고

넷째, 유우도입은 고능력우 위주로 하되 기성목장에서 개량용으로 도입토록 하고 기업 및 전업목장을 중축 생산목장으로 지원 유도토록 할 것이며

다섯째, 축산물 가격동결보다는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각종 축산 기자재, 사료, 의약품 등 수입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와

여섯째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책 강구와 가축의 질병 예방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로 실시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하 67페이지에서 계속)

다. 잎의 비율이 많을 것

잎의 비율은 산야초의 예취시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풀은 늦게 수확한 풀보다 잎의 비율이 높아 영양가치가 높다. 잎은 줄기보다 조단백질 함량이나 카로틴 함량이 높다.

라. 이물질(異物質)이 없는 것

풀뿌리나 먼지, 흙, 곰팡이, 유독식물(有毒植物) 등이 혼합되어 있으면 전초의 질이 떨어지며 가축에게도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 향기 및 촉감이 좋은 것

잘 만들어진 전초는 향긋한 냄새가 나며 기호성도 좋다. 또한 줄기가 가늘고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좋다.